

간호대학생을 위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이 임파워먼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

박정하
동서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on Empowerment, Self-directed Learning, and Happiness

Jung Ha Park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Dongseo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에게 영화를 활용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참가자는 총 60명의 간호대학생으로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3월 7일부터 6월 13일까지이다. 데이터는 SPSS WIN 24.0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paired t-test로 분석되었다.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은 총 13차시로 구성되었고, 셀프 메니지먼트, 셀프 트레이닝, 셀프 브랜딩에 대한 내용으로 14편의 영화가 활용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교육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4.38, p<.001$). 세부항목으로, 행동중심적 전략, 자연보상적 전략 및 건설적 사고전략가 모두 유의하였다. 임파워먼트도 교육 후 유의하게 증가하였고($t=-5.83, p<.001$), 개인적능력, 집단인식 및 자기결정도 모두 유의하였다. 자기주도적 학습능력도 교육 후 높았고($t=-3.31, p=.002$), 학습계획과 학습실행이 유의하였다. 더불어, 간호대학생의 행복감도 교육 후 유의하게 높았다($t=-4.49, p<.001$). 본 연구결과, 영화를 활용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자기주도 학습능력 및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교육중재로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pply self-leadership program using films to nursing students and to confirm the effects of self-leadership, empowerment, self-directed learning and happines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60 nursing student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March 7, to June 13, 2017. The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and paired t-test using SPSS WIN 24.0 computer program. The self-leadership program consisted of 13 sessions, and 14 films were used for self-management, self-training, and self-branding. The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education($t=-4.38, p<.001$). In details, behavior-focused strategies, natural-reward strategies, and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were all significant. Empowerment also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education($t=-5.83, p<.001$), and personal skills, collective recognition, and self-determination were all significant. Self-directed learning were high after education($t=-3.31, p=.002$), and learning plans and learning practices were significant. In addition, the happi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after education($t=-4.49, p<.001$). As a result of this study, self-leadership program using movies can improve self-leadership, empowerment, self-directed learning and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and It will be possible to apply as educational intervention in the future.

Keywords : Empowerment, Film, Happiness, Self-Directed Learning, Self-Leadership

이 논문은 2019년도 동서대학교 "Dongseo Cluster Project"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DSU-20190011).

*Corresponding Author : Jung-Ha Park(Dongseo Univ.)

email: suha2002@gdsu.dongseo.ac.kr

Received April 22, 2019

Revised May 15, 2019

Accepted July 5, 2019

Published July 31,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서 병원조직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자율적인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1]. 특히, 의료인력자원 중 가장 많은 간호사의 리더십 발휘가 필수적이고, 경력에 따라 차별화된 역할이 요구되며[2] 각각의 특성에 맞는 리더십이 제시될 필요가 있어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서는 셀프 리더십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4]. 셀프리더십이란 개인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스스로 변화시켜서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을 뜻한다[2]. 효과적인 셀프리더십은 학습을 통해 얻어질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신규간호사로서 새로운 업무환경에 적응하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셀프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5].

셀프리더십은 개인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셀프리더십이 향상되면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증가하므로[6] 의학기술과 정보의 급진적인 변화, 질병의 다양화, 내외부 고객의 인권강화 및 병원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이 강조되는 최근 임상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실무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셀프리더십이 향상이 되면 임파워먼트도 상승이 되는 효과가 있는데[7] 임파워먼트는 미래의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므로[8] 향후 간호전문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위한 셀프리더십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Min 등[9]의 연구에서 셀프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의 적용 후 간호대학생의 행복정도가 향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행복의 경험은 사소한 것으로부터 마음의 안녕을 유지하는 편안한 상태의 경험 즉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므로[10]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이 활용된다면 간호대학생이 안정적으로 대학생 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위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은 강의[9], 집단상담[11], 강의, 토의, 활동, 등의 방법으로 실시가 되었지만[7,12],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학습 경험은 34.4%로 부족하였다[13]. 또한, 셀프리더십 정도는 증상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어[13]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개발되어 적용될 필요가 있다.

한편, 셀프리더십을 키우는 전략으로 리더 경험의 지도를 제언하고 있다[14]. 영화는 셀프리더십을 성공적으로 발휘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울 수 있고[15] 심도있는 경험을 하게 하는 교육방법이 될 수 있어서[16] 리더십 교육에 영화가 적용되고 있다[17,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자 기술인 리더십을 향상 시키기 위해 영화를 활용한 교육으로 리더로서 간접체험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향후 영화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 구성 및 교수학습방법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에게 영화를 활용한 셀프리더십 교육을 실시한 후 셀프리더십,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임파워먼트, 행복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영화를 활용한 셀프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행복감의 변화를 확인하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실험설계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B 지역의 간호학과 2학년 간호대학생으로 성공학 교과목을 수강한 학생들로 셀프리더십 증진 교육경험이 없는 자로 선정되었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연구참여에 대한 거부권, 자발적인 참여중단, 익명과 비밀보장, 이익과 불편, 연구대상자의 윤리보호 등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여부는 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설문은 모두 익명으로 작성됨을 강조하였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동의한 학생들에게 연구참여동의서를 받은 후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총 62명이 참석하였으나 불충분하게 응답한 2부를 제외한 6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의 크기 0.5일 때 최소 54명으로 본 연구의 표본 수 60명은 표본으로 충분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셀프리더십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Houghton과 Neck[19]이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셀프리더십 척도를 Shin 등[20]이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도구의 구성은 총 3개의 상위항목인 행동중심적 전략, 자연 보상적 전략 및 건설적 사고전략과 9개의 하위항목인 자기목표설정(5문항), 자기보상(3문항), 자기차별(4문항), 자기관찰(4문항), 자기단서(2문항), 자연적 보상(5문항), 성공적 수행 상상하기(5문항), 자기대화(3문항), 신념과 가정분석(4문항)이다.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Shin 등[2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70-.87이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74-.80였다.

2.3.2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는 Bolton과 Brooking[21]가 개발한 척도를 Kim[22]이 청소년에게 맞게 번역, 수정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도구는 총 29문항으로 개인적 능력(16문항), 집단인식(5문항), 자기결정(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Kim[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4였고, 본 연구에서는 .75였다.

2.3.3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Lee 등[23]이 개발한 자기주도 학습역량도구를 이용하였다. 도구는 총 45문항으로 학습계획(20문항), 학습실행(15문항), 학습평가(10문항)로 구성되었다.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76였고, 본 연구에서는 .91였다.

2.3.4 행복감

행복감은 Lee와 Yoo[24]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8문항으로 5점 척도로 평가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Cronbach's alpha는 .89였고, 본 연구에서는 .86였다.

2.4 실험처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화는 셀프리더십의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3부분으로 구분하여

영화를 선택하였다[18]. 셀프메니지먼트에 대한 내용은 비전수립, 자기목표설정, 리더십 유형 자가진단에 대한 요소로 미션, 나 없는 내 인생, 샤인, 죽은 시인의 사회, 타인의 취향, 노팅힐이 포함되었다. 셀프트레이닝에 대한 내용은 멘토링, 셀프코칭, 커뮤니케이션, 봉사, 시간관리에 대한 요소로 굿 윌 헌팅, 쇼생크탈출, 패치아담스, 아름다운세상을 위하여,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가 포함되었다. 마지막 셀프브랜딩에 대한 요소는 퍼스널 브랜딩,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내용은 자기탐색, 퍼스널 브랜딩 구축에 대한 요소로 모나리자 스마일, 족구왕, 조이가 선택되었다. 종합하면 국외영화 13편과 국내영화 1편으로 총 14편의 영화가 활용되었다.

영화의 적용내용과 방식은 선행문헌[18,25]을 참고로 전체영상 또는 클립본 영상이 사용되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은 수업과 수업 후 활동으로 구분이 된다. 수업에서는 셀프리더십 내용에 대한 이론적 강의가 짧게 실시된 이후에 영화제목, 내용소개, 인물안내가 이루어진 후 영화를 감상하였고, 개인 또는 그룹으로 감상소감을 나누었다. 수업 후 활동은 주제와 관련된 워크시트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영화를 활용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은 총 13차시로 120분으로 운영되었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WIN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변수는 기술통계로, 교육 전후의 변수들의 차이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88.3%가 여자였고 평균연령은 23.2세였다. 학과만족도의 경우 만족이 25%, 보통이 63.3%, 낮음이 11.7%였다. 리더십 경험이 있는 경우가 26.7%였고, 리더십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가 63.3%였다. 학생들의 66.7%가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었고, 자취는 21.7%, 기숙사 8.3%, 기타 3.3%였다. 학생들의 56.7%가 종교가 없었고, 기독교 25%, 불교 11.7%, 천주교 6.7% 순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60)

Characteristics		n(%) / M±SD
Gender	Male	7(11.7)
	Female	53(88.3)
Age		23.18±0.75
Major Satisfaction	Good	15(25.0)
	Moderate	38(63.3)
	Not good	7(11.7)
Experience of leadership	Yes	16(26.7)
	No	44(73.3)
Experience of leadership education	Yes	38(63.3)
	No	22(36.7)
Residual type	Own home	40(66.7)
	Dormitory	5(8.3)
	Self-boarding	13(21.7)
	Etc	2(3.3)
Religion	Catholic	4(6.7)
	Christianity	15(25.0)
	Buddhism	7(11.7)
	None	34(56.7)

3.2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Table 2와 같다. 셀프리더십은 교육 전 3.31±0.52, 교육 후 3.52±0.49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38, p<.001$).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행동중심전략은 교육 전 3.56±0.51, 교육 후 3.71±0.48,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elf-leadership (N=60)

Variable	Pre-test	Post-test	t	p	
	M±SD	M±SD			
Self-leadership	3.31±0.52	3.52±0.49	-4.38	<.001	
Behavior-focused strategies	Self-goal setting	3.39±0.81	3.51±0.72	-1.89	.064
	Self-reward	3.69±0.97	4.09±0.86	-3.74	<.001
	Self-punishment	3.55±0.64	3.62±0.88	-0.82	.415
	Self-observation	3.45±0.65	3.67±0.58	-2.97	.004
	Self-cueing	3.71±0.89	3.63±0.78	0.72	.477
Total	3.56±0.51	3.71±0.48	-3.59	.001	
Natural-reward strategies	Focusing thoughts on natural rewards	3.19±0.66	3.45±0.61	-3.44	.001
Constructive thought pattern strategies	Visual successful performance	3.21±0.66	3.56±0.73	-3.73	<.001
	Self-talk	3.13±0.89	3.37±0.90	-2.52	.014
	Evaluating beliefs and assumptions	3.17±0.74	3.31±0.75	-1.70	.094
	Total	3.17±0.74	3.41±0.65	-3.75	<.001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empowerment, self-directed learning abilities and happiness (N=60)

Characteristics	Pre-test	Post-test	t	p	
	M±SD	M±SD			
Empowerment	Personal skills	2.95±0.28	3.13±0.34	-5.44	.000
	Collective recognition	2.74±0.45	2.95±0.48	-4.34	.000
	Self-determination	3.03±0.33	3.19±0.40	-3.31	.002
	Total	2.91±0.28	3.10±0.35	-5.83	.000
Self-directed Learning	Learning plan	3.08±0.58	3.31±0.51	-4.45	.000
	Learning practices	3.19±0.45	3.37±0.38	-4.23	.000
	Learning assessment	3.05±0.44	3.08±0.37	-0.49	.624
	Total	3.12±0.51	3.26±0.33	-3.31	.002
Happiness	3.47±0.61	3.71±0.67	-4.49	.000	

자연보상적 전략은 교육 전 3.19±0.66, 교육 후 3.45±0.61, 건설적사고 전략은 교육 전 3.17±0.74, 교육 후 3.41±0.65으로 유의하였다($t=-3.59, p=.001$; $t=-3.44, p=.001$; $t=-3.75, p<.001$).

3.3 대상자의 임파워먼트, 자기주도적학습능력, 행복감

대상자의 임파워먼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행복감은 Table 3과 같다.

임파워먼트는 교육 전 2.91±0.28, 교육 후 3.10±0.35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83, p<.001$).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개인적 능력은 교육 전 2.95±0.28, 교육 후 3.13±0.34, 집단의식은 교육 전 2.74±0.45, 교육 후 2.95±0.48, 자기결정은 교육 전 3.03±0.33, 교육 후 3.19±0.40으로 유의하였다($t=-5.44, p<.001$; $t=-4.34, p<.001$; $t=-3.31, p=.002$).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교육 전 3.12±0.51, 교육 후 3.26±0.33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31, p=.002$). 세부항목 중 학습계획이 교육 전 3.08±0.58, 교육 후 3.31±0.51, 학습실행은 교육 전 3.19±0.45, 교육 후 3.37±0.38으로 유의하였다($t=-4.45, p<.001$; $t=-4.23,$

$p<.001$).

행복감은 교육 전 3.47 ± 0.61 , 교육 후 3.71 ± 0.67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49$, $p<.001$).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을 향상 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영화를 활용하였다. 사용된 영화는 총 14편으로 국외 13편, 국내 1편이었다. 영화를 활용한 수업에서는 개념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도록 짧은 강의의 선행이 추천되므로[23] 영화와 관련된 리더십 요소에 대하여 10-15분간 이론적인 강의를 실시되었다. 이후 영화에 대한 안내로 제목, 줄거리, 주요인물 등이 소개되었고, 전체 혹은 클립본 영상으로 영화를 감상한 후 개별 및 집단으로 소감을 나누는 활동을 하였다. 수업이후의 활동으로 영화와 관련된 리더십요소에 대한 워크시트를 작성하도록 지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교육 전 3.31점으로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3.39~3.56점보다는 낮았지만[14,26] 셀프리더십의 하위항목에서는 다른 연구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동중심적 전략이 높았다[14]. 교육 후 셀프리더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는데, 하위항목에서 행동중심전략, 자연보상적 전략, 건설적 전략의 순으로 변화가 있었다. Kim 등[11]의 연구에서는 14주 동안 매주 2시간씩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이 집단상담의 성격으로 실시되었고, 셀프리더십이론에 기초하여 행동중심적 전략, 자연적 보상전략, 건설적 사고 전략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나 하위항목에서 건설적인 사고에서만 유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3주 동안 매주 2시간씩 영화교육이 운영되었고, 행동중심전략, 자연보상적 전략, 건설적 전략이 모두 유의하였다. 자연적 보상전략과 건설적 사고전략은 인지적 전략을 대표하므로[27]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영상과 PPT 자료를 사용한 Jung[7]의 연구결과와 같이 본 연구의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은 행동중심적 전략과 인지적 전략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다만, 향후 연구에서는 영화의 내용구성, 교육제공방법 등과 셀프리더십의 세부항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중재연구의 효과가 측정될 필요가 있겠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교육 전 3.12점에서 교육 후 3.26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Jung[7]의 연구에서도 셀프리더십 증진 프로그램이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상승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이 높을 경우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적극적이고, 집단의 목표달성을 위해 타인과 정보를 공유, 실천 및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므로[28] 급변하는 의료환경에서 조직의 목표달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본역량을 갖추기 위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

간호대학생의 임파워먼트는 교육 전 2.91점에서 교육 후 3.10점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Jung[7]의 연구에서도 셀프리더십 증진 프로그램이 임파워먼트를 상승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측정도구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Han[29]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임파워먼트는 4.33점, Lee와 Kim[30]의 연구에서 2.79점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영화를 활용한 셀프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행복감을 유의하게 향상 시켰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셀프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으로 간호대학생의 행복정도가 향상이 되었다[9]. 간호대학생이 행복하면 임상실습 현장에서 만나는 대상자들에게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므로[30] 추후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나가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영화 활용 셀프리더십 교육을 통해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이 수립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의 종합적인 결과, 영화를 활용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은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뿐만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임파워먼트 및 행복감도 높여주었으므로 향후 교육적 중재로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Park[25]의 교육 시 영화선택에 대한 제언에 따라 국내 영화의 발굴에 노력했으나 한 편의 국내영화만이 선택되었다. 향후 주제와 관련된 영화의 선택에서부터 영화를 활용한 교육모형설계가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고, 더불어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실시되기를 제언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에게 총 14편의 국내외 영화를 활용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임파워먼트,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행복감이 모두 유의하

게 상승하여 영화를 활용한 셀프리더십 프로그램의 효과와 교육적인 의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영화를 활용한 교육연구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셀프리더십의 지속성을 확인하는 장기적인 연구와 다양한 대상에게 적용하여 효과를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영화교육의 효과를 다각도로 평가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도구가 개발되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M. J. Song, I. S. Kang, D. H. Kim, "Path Analysis of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Managerial Characteristics, Job Characteristics, Job Stress, Job Involvement, and Group Coherenc",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1, no4, pp.1953-1965, 2009.
- [2] S. H. Park, K. O. Park, S. A. Park, "A Development of Career Ladder Program for Nurse in a Hospital",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12, no4, pp.624-632, 2006.
- [3] Y. S. Lee, S. H. Pack, J. K. Kim, "Nursing Students' Self - Leadership, Self-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 College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6, pp.229-240, 2014. DOI: <https://doi.org/10.5392/JKCA.2014.14.06.229>
- [4] C. C. Manz, "Self-leadership toward an expanded theory of self-influence process in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1, no3, pp.585-600, 1986.
- [5] Y. S. Kang, Y. J. Choi, D. L. Park, I. J. Kim, "A Study on Nurses Self-Leadership, Self-Esteem,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6, no2, pp.143-151, 2010.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0.16.2.143>
- [6] Y. J. Lee,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 Self-leadership Level on Campus-life Satisfac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Academic Self-efficacy*,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pp.33-42, 2012
- [7] C. S. Jung, *"The effectiveness of self-leadership enhancing program in nursing student"*,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pp.21-25, 2015.
- [8] C. H. Gibson, "A concept analysis of empowerment",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23, no2, pp.354-361, 1991. DOI: <https://doi.org/10.1111/j.1365-2648.1991.tb01660.x>
- [9] S. Min, G. W. Yu, H. S. Kim, "The effect of self leadership training program on hope and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Daehan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11, pp.381-397, 2010.
- [10] K. H. Jo, Y. K. Kim,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happiness expressed by nursing students through college art works: A content analysi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6, no1, pp.61-71, 2010.
- [11] J. Y. Kim, M. A. Kim, S. J. Lee, E. J. Kim, "Effects of Leadership Program on Self-leadership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1, pp.575-586, 2015.
- [12] S. E. Oh,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Leadership Camp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A doctoral dissertation, Inha University, Seoul, 2016.
- [13] K. N. Kwon, *Clinical Compet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in a City*,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pp.15-26, 2014.
- [14] J. Y. Choi, *"Study on Factors Affecting Self-leadership of Nursing Students"*, A doctoral dissertation, Eulji University, Daejeon, KOREA, pp.44-46, 2016.
- [15] D. B. Lee, I. S. Yoon, "Cinema Therapy for the Improvement of Self-leadership - Focused on The Shawshank Redemption Directed by Frank Daradont", *Journal of Humanities*, vol.24, pp.385-411, 2010.
- [16] J. E. Champoux, "Film as a Teaching Resource", *Journal of Management Inquiry*, vol.8, no2, pp.206-217, 1999.
- [17] S. K. Hwang, "A Study of the Problem about leadership in the Movie Dead Poets Society", *The Korean Society for Thinking and Communication*, vol.9, no2, pp.293-319, 2016. DOI: <https://doi.org/10.19042/kstc.2016.9.2.293>
- [18] J. H. Park, J. W. Bae, "Success in film", pp.3-196, Soomoonsa, 2017.
- [19] J. D. Houghton, C. P. Neck,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 Testing a hierarchical factor structure for self-leadership",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vol.17, no8, pp.672-691, 2002.
- [20] Y. K. Shin, M. S. Kim, Y. S. Han,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Revised Self-Leadership Questionnaire(RSLQ) for Kore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vol.6, no3, pp.313-340, 2009. DOI: <http://doi.org/10.16983/kisp.2009.6.3.377>
- [21] B. Bolton, J. Brooking, "Development of a measure of intrapersonal empowerment",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43, no2, pp.131-142, 1998.
- [22] Kim, H. S. *A study on readiness for self-sufficiency of poor adolescents: Analyzing mediator effect of empowerment*. A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p. 43-58, 2002.
- [23] S. J. Lee, Y. K. Jang, H. N. Lee, K. Y. Park, "A Study on

- the Development of Lifelong Learning Tools: Communication Skills Focusing on problem solving 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pp.142-145,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03.
- [24] I C. Lee, S. M. Yoo, “Development of a Quotient for Health, Happiness, and Peace(HSP-Q) with Exploratory Method”,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9, no5, pp.2161-2171, 2007.
- [25] J. H. Park, “Do-Not-Resuscitate (DNR) Education Program Using Drama and Movi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24, pp.559-573, 2017.
- [26] O.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leadership among Nursing”,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9, pp.6036-6043, 201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9.6036>
- [27] C. C. Manz, “Developing self-leaders through Super leadership”, *Supervisory Management*, vol.36, no9, 3, 1991
- [28] S. J. Chae, K. Y. Lim,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agroup Peer Assessment Results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in a Leadership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Med Education*, vol.20, no4, pp.363-366, 2008.
- [29] S. J. Han,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Adult Nursing*, vol.25, no.5, pp. 559-566, 2013. DOI: <https://doi.org/10.7475/kjan.2013.25.5.559>
- [30] H. N. Lee, J. H. Kim, “The influencing factors of Ego-Resilience and Empowerment on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8, pp.292-300, 2016. DOI: <https://doi.org/10.5762/KAIS.2016.17.8.292>

박 정 하(Jung-Ha Park)

[정회원]



- 2003년 2월 : 부산가톨릭 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동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방법, 간호관리, 가상현실, 환자안전